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선택과 정당태도의 복합 지표 모형

황아란 | 부산대학교

| 논문요약 |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이후 두 번째 정권교체라는 중요한 정치사적인 의미와 함께 유권자들이 국정운영의 성과에 기초하여 투표하는 심판적 성격을 보여 주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큰 득표율 차이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점은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유권자의 정당 지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지 변화를 비롯하여 정당태도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정당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는 이론적으로 정당성향에 대한 본래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이면서, 또한 경험적으로도 투표선택에서의 정당지지는 각 정당에 대한 분리된 반응의 종합된 결과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우선, 유권자의 정당성향은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증가하여 당파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선호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거부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서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양극적인 일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화가 적합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투표선택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의 영향이 후보선택의 모형에 따라 달랐다는 점인데, 이명박 후보의 선택은 반대 정당에 대한 거부보다 친 한나라당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던 반면, 정동영 후보의 선택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의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받는 반 정당 투표의 성격도 지닌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태도에 대한 복합지표 모형은 정당성향이 지닌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중요성을 지닌다.

I. 서론

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 대통령 선거는 매 선거마다 한국 정치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의 절차적 민주주의 외에도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이양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높았다. 뒤이어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문민통치로의 전환이, 그리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짐으로써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이후 소위 '3김 시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표상한 세대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역시 어떤 시대정신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며,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강하게 표출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약화될 것인가도 주목의 대상이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공고화되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유권자들이 국정운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정권을 지속시키거나 교체시킨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 선거이기도 하였다. 즉 대통령 선거의 정권교체는 국가경제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심판의 정당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선거와 달리 제17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22.6%)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점은, 10년 전 IMF 경제위기에도 박빙의 차이(1.6%)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당시 상황과 큰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당지지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명박 당선인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고르게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는 사실은 출신지에 근거한 지역주의적 정당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영남과 호남에서 보여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 대한 지역적 표의 집중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극명하게 대비됨으로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는 소위 '3김 시대'가 막을 내린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세대와 이념 갈등 등 새로운 정치균열이 등장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비롯해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지지의 유동성이 높아진 현상은 정당에 대한 태도가 그리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김형준 2007; 전용주 2007; 황아란 2008). 또한 영·호남의 지역적 표의 집중현상도 그 정도에 있어 선거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지역주의 정당태도 역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상훈 2001; 황아란 2007).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변화를 비롯하여 정당태도의 유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태도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정당태도의 다차원적인 접근에 대한 후속 연구로써 정당에 대한 선호와 반대가 정당태도의 독립적인 구성요인이라는 주장에 기초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정당 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 대신 부정적인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 왔지만, 정당 태도는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차원적 정당태도의 분석은 측정의 한계로 인하여 정당에 대한 선호와 반대만을 고려하였을 뿐 정당태도가 지닌 선호의 정도와 거부감의 정도를 포함하지 못하였다(황아란 2007, 1998). 그러나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설문조사에서는 유권자가 좋아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 정도와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반대 정도를 묻는 설문항목이 포함됨으로써 정당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점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당태도의 다차원적인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형 분석은, 정당지지의 유동성뿐 아니라 투표행태에 미치는 정당태도의 영향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각각의 정당에 대한 분리된 반응으로써 정당태도가 형성된다는 다차원적 접근은 정당에 대한 지지와 투표 선택의 불일치 현상이나 정당지지의 유동성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호하는 정당만을 고려하는 모형에서는 좋아하는 정당이 있으면서도 다른 정당소속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당태도가 아닌 후보나

이슈 등 다른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당태도를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투표선택의 이탈행위를 이해하는 데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예컨대 선호하는 정당이 있다 하여도 다른 정당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경우보다 다른 정당을 선택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정당태도의 유동성에 대한 설명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와 반대도 함께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투표선택에서의 정당지지와 정당 선호의 문제뿐 아니라 반대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태도의 복합적인 지표 모형이 유용성을 지닌다 하겠다. 특히 정당태도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즉 선호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반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어찌면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태도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태도와 독립적으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이 적다 하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인 관점에서뿐 아니라 부정적인 선거운동(negative campaigns)의 효과나 여당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보상보다 처벌이 강한 부정성의 효과(negativity effect)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은 정당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다차원적인 정당태도에 대한 개념적, 경험적 근거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한국 선거의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다차원적인 정당태도로서 접근하여 이해를 도울 것이다. 제3절의 분석은 먼저 제17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살펴본 후,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정당에 대한 선호와 거부 태도를 분석할 것이다. 제4절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정당태도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제5절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찾아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참고로 본 연구의 분석은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와 유권자의 의식 조사의 설문자료를 이용하며, 통계검증의 경험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¹⁾

1) 집합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이며, 설문자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II. 다차원적인 정당 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당태도의 복합적 개념: 지지와 반대

유권자의 정당태도는 선거행태를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분석에서 드러난 영향력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입증되었다. 정당태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감정적인 관점과 평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지만, 주목할 점은 어떤 관점이든 정당태도가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데 있다.

정당태도의 개념은 일찍이 사회심리적 측면의 정당성향을 주장한 미시간 학파에서 처음 정의 내렸듯이 “개인의 주변 환경 속에서 중요한 집단대상에 대한 감정적인 정향”이며, “정당은 개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도의 차이를 지니고 일체감을 갖는 대상”인 것이다(Campbell et al. 1960, 120-121 강조 추가). 이는 ‘정당에 대한 매력적인 면(attracting quality of a party)’ 과 ‘혐오적인 면(repelling quality of party)’ 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인은 특정 정당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일체감’ 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p121-122).

한편, 평가적 관점에서 정당태도의 개념은 정당성향이 집권당의 업적이나 정책 사안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누적된 총계로 정의되고 있다(Brody 1977; Fiorina 1981). 즉 ‘두 정당에 대한 개인의 과거 정치적 경험의 차이’ 로 정당 일체감이 형성되는 데에는 계속되는 정당의 공약과 업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기초한다는 것이다(Fiorina 1981).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정당태도의 변화와 유동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라 하겠다. 즉 정당성향은 정당에 대한 과거 경험으로 회고적인 평가의 요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사건에 따라 정당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종합하면, 감정적인 관점에서는 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뜻하며, 평가

전국(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제15대 대선(1,207명), 제16대 대선(1,407명), 제17대 대선(1,200명)에 대한 선거후 의식조사 자료이다.

적 관점에서는 정당에 대한 과거 평가의 누적된 태도를 뜻한다. 또한 전자는 정당태도가 안정성을 지닌 장기적인 성향으로써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인식의 선별 기제(perceptual screen)로 작용하여 후보나 이슈, 정당의 업적 등 단기적인 요인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후자는 단기적인 요인들에 의해 정당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관점 모두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의 복합적 개념에 기초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당태도가 투표행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2. 다차원적인 정당태도에 대한 경험적 증거

정당태도의 복합적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정당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부정적인 측면은 소홀히 다룸으로써 그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대체로 무시되어 왔다. 즉, 정당에 대해 ‘지지’ 하는 태도의 방향성과 그 강도만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양당 구도하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경쟁하는 다른 정당에 대한 반대를 함의하는 일차원적 태도로서 개념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두 정당에 대한 태도가 뚜렷한 일차원의 양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Petrocik 1974), 정당태도의 개념화와 측정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정당성향의 일차원적인 척도는 중도를 가운데 두 정당을 양쪽 끝에 두는 일차원적인 양극 척도를 이용해 왔으며, 정당 성향의 강도는 투표행태에 일방향의 순차적(monotonic)인 관계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차원적인 양극 척도에 역차현상(intransitivities)이 발견된 후부터 정당성향의 다차원적인 개념화를 제안하는 연구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Maggiotto and Pierson 1977; Kats 1979; Valentine and Van Wingen 1980; Shively 1980; Weisberg 1980).

정당태도의 다차원적인 개념화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다른 정당에 대한 반대가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같이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Maggiotto and Pierson 1977; Weisberg

1982; Wattenberg 1990; Richardson 1991). 즉 정당태도를 구성하는 이 두 요소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다른 정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정당성향은 각 정당에 대한 분리된 반응이 종합된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당태도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화에서 주목할 점은 반대하는 정당 없이 선호하는 정당만 있는 경우나 혹은 선호하는 정당이 없이 반대하는 정당만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 지지자가 하나 이상의 정당에 호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태도가 다른 정당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며, 반대하는 정당보다 지지하는 정당에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태도에 대한 양극적인 일차원의 개념화가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곧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즉, 정당에 대한 양극화된 인식구조가 비대칭적일 수 있다는 주장(Jacoby 1981)은, 예컨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해서 다른 정당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보다 투표행태에 더 강한 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정적 태도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결과의 변동이 '여당의 성과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반응'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미시간 학파의 주장(Campbell et al. 1960, 554)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투표행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 투표 이론(negative voting theory)'은 주기적으로 여당이 의석을 잃는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것이다(Kernell 1977; Lau 1982; Cover 1986). 또한 반(反)후보 투표(anti-candidate voting)에 대한 연구들이 보여준 부정성의 효과(negativity effect) 역시 부정적 태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Lau 1982; 1985; Sigelman and Gant 1985; 1989).

3.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태도: 충성심과 적대감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함께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두 정당이 오랫동안 선거경쟁을 벌여온 양당체제에서 특히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 한국은 정당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태도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정당 지지에 기반을 둔 정당경쟁 체제의 지속성에서 정당 태도의 안정성을 말할 수 있겠다. 즉, 과거 여야 개념이 안정성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들은 지역 연고정당의 속성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주요 정당의 명칭이 자주 바뀌고 정치 지도자들에 변화가 있다 해도 각 정당이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간주되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의 표의 결집은 배타적 정당 지지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투표선택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정당 지지가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선호를 뜻한다는 것은 ‘지지’라는 개념 자체가 선호를 함의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다. 그러나 배타성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를 위하여 지역 연고 정당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 정당태도에 배타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주의의 발생 가설들에서 잘 살펴 볼 수 있다. 즉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역사적 편견(김만홍 1987; 김진국 1988; 신복룡 1997)이나 정치경제적 차별(이상휘 1993; 손호철 1997; 노병만 1997; 최영관 1997; 신기현 1999), 혹은 정치적 지지 동원(이갑운 1997; 조기숙 1997; 박상훈 2001)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경쟁하는 정당에 대한 적대적 지역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주의 정당지지는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써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양극적인 일차원의 관계로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

2)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체제는 다당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양당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 하겠다. 이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적으로 양당적 경쟁구도를 지닌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한 것인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는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지역 연고 정당과 반대 정당에 대해 각각의 분리된 반응이 종합된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황아란 2007). 즉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선호가 반드시 다른 정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선호하는 정당과 반대하는 정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만, 선호하는 정당 혹은 반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도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적 정당태도의 기존 연구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분리된 반응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반대 여부로만 측정하여 태도의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측정의 문제는 좋아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제대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강도를 고려하는 것은 정당태도의 다차원적인 개념화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당 지지가 각 정당에 대한 분리된 반응의 종합된 결과라는 주장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와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정도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정당 태도의 변화와 지속성

1. 정당 지지와 정당 태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과거보다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약화된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높은 득표율의 분포를 나타냈다는 데 있다. 또한 영·호남의 지역적 표의 결집도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보다는 낮아진 것이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남의 한나라당 후보(이회창) 지지는 69.4%, 호남의 민주당 후보(노무현) 지지는 93.2%였으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남의 이명박 후보 득표율과 호남의 정동영 후보 득표율은 각각 62.4%, 80.0%로 줄어들었다.

〈표 1〉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 득표율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유효투표수
전국	48.7	26.1	15.1	23,612,880
수도권	서울	53.23	24.50	5,051,369
	인천	49.22	23.77	1,205,357
	경기	51.88	23.55	5,017,407
	강원도	51.96	18.88	723,503
충청	대전	34.26	23.55	677,948
	충남	49.22	21.08	915,505
	충북	41.58	23.79	696,096
영남	대구	69.37	6.00	1,263,678
	경북	72.58	6.79	1,424,472
	부산	57.90	13.45	1,759,252
	울산	53.97	13.64	518,586
	경남	55.02	12.35	1,533,330
호남	전북	9.04	81.60	952,452
	광주	8.59	79.75	661,552
	전남	9.22	78.65	962,851
	제주	38.67	32.69	249,522

그렇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 대한 영·호남의 지역적 표의 집중 현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표 1〉을 통해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명박 후보는 48.7%의 득표율을 얻어 2위의 정동영 후보(26.1%)보다 무려 22.6%나 앞섰으며, 3위의 이회창 후보(15.1%)보다는 3배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 득표율에서는 영남 지역(62%)에서 예상대로 이명박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을 뿐 아니라 호남을 제외하고 전부 1위의 득표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호남에서 이명박 후보가 10%에도 미치지 못한 지지를 받았던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호남의 배타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둘째, 정동영 후보는 호남에서 80%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의 득표율은 크게 떨어져 영남과 충남에서는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남에서의 낮은 득표율(10%)은 영남 지역주의의 배타성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선호정당 및 거부정당 분포: 2002년-2007년

		2002년	2007년
선호정당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 23.2 • 호남 연고 정당* 26.9 • 기타 정당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4 13.5 14.2
	없음	40.9	27.0
거부정당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 23.5 • 호남 연고 정당* 13.0 • 기타 정당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1 27.7 17.6
	없음	44.0	32.6

* 호남 연고 정당: 새천년국민회의(1997), 새천년민주당(2002년), 대통합민주신당(2007년)

셋째,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는 충남과 영남 지역에서만 2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10%대의 낮은 지지를 얻었다. 이는 이회창 후보가 지난 제15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얻었던 득표율(각각 38.7%, 46.6%)과 비교해 볼 때, 소속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고려가 투표선택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득표율만으로 유권자의 정당 지지가 강화되었다거나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는 선호정당과 거부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그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 〈표 2〉는 제16대 및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좋아하는 선호정당과 싫어하는 거부정당의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선호정당의 분포 변화를 살펴볼 때,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한 반면, 호남 연고 정당에 대한 선호는 크게 감소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는 2002년 23.2%에서 2007년 45.4%로 증가하였으나, 호남 연고 정당에 대한 선호는 26.9%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또한 선호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은 2002년 대

3) 선호 정당의 측정은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정당 중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거부정당의 측정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당을 가장 싫어하십니까?”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였다.

선(40.9%)보다 2007년 대선(27.0%)에서 크게 줄어들어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가 늘어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거부정당의 분포는 2007년 대선에서 특히 호남 연고 정당에 대한 거부가 크게 증가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을 가장 싫어한다는 응답자는 2002년 대선(23.5%)과 2007년 대선(22.1%)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호남 연고정당에 대한 거부는 2002년(13.0%)보다 2007년 대선(27.7%)에서 급격히 증가된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정당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본다. 제17대 대선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정이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반대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제17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48.9%)과 비교해 현격히 떨어진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26.1%)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주요 정당에 대한 선호와 거부를 살펴볼 때, 정당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모두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투표선택에서 나타나는 정당지지의 변화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평가 등이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정당태도에서 주목할 점은 당파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좋아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과 싫어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에서도 잘 나타났다. 또한 제17대 대선에서 증가된 당파성은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거부가 증가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지지의 유동성을 이해하는 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었다.

4) 제15대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83%를 차지하였으며, 제17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62.6%를 차지하였다.

2. 다차원적 개념의 긍정적, 부정적 정당 태도

유권자의 당파성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와 거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 볼 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차원적인 정당태도의 개념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당성향으로 각기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선 그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당성향은 선호하는 정당과 거부하는 정당이 있는가의 유무를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즉 좋아하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좋아하는 정당만 있고 싫어하는 정당은 없는 경우, 좋아하는 정당은 없지만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좋아하는 정당도 싫어하는 정당도 없는 경우이다.

〈표 3〉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선호 정당과 싫어하는 거부 정당을 모두 갖고 있는 정당 성향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17대 대선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58.3%)은 지난 16대 대선(42.1%)보다 크게 증가된 것이어서 유권자의 당파성이 강해졌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⁵⁾ 이는 선호 정당도 거부 정당도 없는 무당파의 비율(16.3%)이 제16대 대선(27%)보다 크게 감소한 현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주목할 점은 선호 정당만 있는 경우와 거부 정당만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4명 중 1명 이상은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 혹은 거부의 태도만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정 정당을 선호(혹은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정당을 거부(혹은 선호)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당태도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화가 적절하

〈표 3〉 긍정적, 부정적 정당 태도의 정당성향 유형(2002-2007)

선호	거부	2002년	2007년
○	○	42.1	58.3
○	×	17.0	15.2
×	○	13.9	10.3
×	×	27.0	16.3

5) 물론 당파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 혹은 거부하는 정당에 대해 싫어하는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선호하는 정당과 거부하는 정당이 모두 있는 정당성향에도 다차원적 정당태도의 개념은 유용성을 지닐 수 있다. 즉,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와 다른 정당을 싫어하는 정도가 양극적인 일차원의 대칭구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 정당을 매우 좋아한다고 다른 정당을 매우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라 하겠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제17대 대선에서 좋아하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반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둘 간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그리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t=0.07, p<.1$), 선호 정당과 반대 정당에 대한 태도가 독립된 반응임을 보여 주었다.

정당 태도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호 정당이나 거부 정당에 대한 양적인 분포뿐 아니라 선호 정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은 거부 정당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수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각 정당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얼마나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⁶⁾ 먼저 선호 정당의 경우, 각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를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평균 점수(7.3)가 가장 높았다. 이는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매우 강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선호 점수(6.5)는 민주노동당의 선호 점수와 동일하였으며, 민주당은 선호하는 응답자가 적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긍정적 태도(5.3)도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이는 군소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열성 지지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거부 정당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7.2)가 다

6)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는 각각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묻는 설문과 가장 싫어하는 정당을 묻는 설문의 다음 질문으로 어느 정도 좋아(싫어)하는지를 각각 0점에서 10점으로 측정하였다.

〈표 4〉 각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수준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기타 정당
선호 정당	7.30(1.89) N=524	6.53(2.38) N=156	6.53(2.38) N=68	5.29(2.39) N=17	6.51(2.25) N=68
거부 정당	7.15(2.91) N=249	6.34(3.38) N=312	5.89(3.20) N=73	5.50(3.46) N=60	5.92(3.12) N=51

(괄호)는 표준편차

른 정당에 비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즉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열성 지지자와 열성 반대자가 많다는 것으로 유권자의 선호와 거부가 가장 강하게 교차되는 정당이라 하겠다. 또한 앞서 대통합민주신당을 가장 싫어하는 정당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 제17대 대선에서 크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수준(6.3)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군소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종합하면, 정당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고려할 때 유권자의 정당 태도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좋아하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관계가 양극의 일차원적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처럼 주요 정당은 유권자의 선호와 반대가 많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강도 역시 군소 정당보다 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태도가 집권당의 국정운영을 비롯해 정당의 공약과 업적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요 정당이 그러한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IV. 다차원적 정당 태도의 투표선택 모형 분석

1. 분석 모형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선택에 대한 모형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비롯하여 현 정부에 대한 평가(국정운영 평가,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 거주지역, 이념성향을 포함하였으며, 인구경제학적 변수로 연령, 성별, 학력을 통제하였다.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이명박 후보를 종속변수로 삼는 것과 정동영 후보를 종속변수로 삼는 것에 대해 각각 기본모형과 종합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조작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선호와 거부는 투표선택 후보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각각 두 개의 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먼저, 설문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이 투표 선택의 모형에서 예측하는 후보와 동일한 경우(X_{11})와 그렇지 않은 경우(X_{12})로 나누어 그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1에서 11까지 측정하였다. 참고로 선호정당이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두 변수의 값을 모두 0으로 조작화하였다. 한편, 거부하는 정당태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두 개의 변수(X_{21} , X_{22})로 나누어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 1에서 11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선호정당1(X_{11})과 거부정당2(X_{22})은 투표선택에 양의 부호를, 선호정당2(X_{12})와 거부정당1(X_{21})은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써 국정운영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이면 1, 부정적인 평가이면 0으로 조작화하였으며, 국가 경제에 대한 지난 5년간의 평가는 3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긍정적 평가(3), 중립적 평가(2), 부정적 평가(1)로써 두 변수 모두 이명박 후보선택의 모형에서는 음의 후보를, 정동영 후보선택 모형에서는 양의 후보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이념성향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진보(0)에서 매우 보수(10)를 뜻하며, 이명박 후보선택 모형에서는 양의 값을, 정동영 후보선택 모형에서는 음의 값을 예상할 수 있다.

〈표 5〉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선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이명박 후보 선택				정동영 후보 선택			
	로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로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로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로지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상수	0.057 (0.160)		0.477 (0.846)		-1.506 (0.204)		-2.006* (1.093)	
정당선호1 X ₁₁	0.184*** (0.025)	1.20	0.160*** (0.028)	1.17	0.352*** (0.046)	1.42	0.308*** (0.048)	1.36
정당선호2 X ₁₂	-0.137*** (0.032)	0.87	-0.129*** (0.034)	0.88	-0.167*** (0.031)	0.85	-0.160*** (0.035)	0.85
정당거부1 X ₂₁	-0.246*** (0.042)	0.78	-0.241*** (0.045)	0.79	-0.166*** (0.065)	0.85	-0.129** (0.066)	0.88
정당거부2 X ₂₂	0.037 (0.023)	1.04	0.030 (0.024)	1.03	0.132*** (0.026)	1.14	0.106*** (0.030)	1.11
대통령 국정평가			-0.470* (0.244)	0.63			1.207*** (0.293)	
국가경제 평가			-0.197 (0.202)	0.82			0.139 (0.240)	1.15
이념성향			0.002 (0.049)	1.00			-0.026 (0.060)	0.97
영남D			0.469** (0.228)	1.60			-0.909** (0.365)	0.40
호남D			-0.232 (0.381)	0.79			1.122*** (0.354)	3.07
연령			0.010 (0.008)	1.01			0.016 (0.011)	1.02
성별D			-0.255 (0.192)	0.78			-0.184 (0.253)	0.83
학력			-0.029 (0.168)	0.97			-0.133 (0.221)	0.88
-2Log L	1164.51		1124.07		880.06		844.71	
X ²	399.72***		407.73***		362.48***		395.52***	
concordant	84.3		86.6		87.8		91.0	
N	855		825		855		825	

*** $p < .01$ ** $p < .05$ * $p < .1$

넷째, 지역주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포함된 변수는 두 개의 가변수로 조작화하여, 응답자의 거주지역이 영남이면, 영남D=1이고 호남D=0, 호남이면 영남

D=0이고 호남D=1을 부여함으로써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영남D=호남D=0). 따라서 이명박 후보선택 모형에서는 영남D가 양의 값을, 호남D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며, 정동영 후보선택 모형에서는 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인구경제학적 변수로서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성별(남자=1, 여자=2)과 학력(중졸 이하=1, 고졸=2, 대재 이상=3)을 포함하였다.

〈표 5〉는 이명박 후보선택과 정동영 후보선택에 대하여 각각 정당태도의 기본모형과 전체 변수를 포함한 종합모형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와 거부의 태도로만 이명박 후보선택을 분석한 기본 모형의 적중률은 84.3%로서, 이는 다른 모든 변수를 포함한 종합 모형(86.6%)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동영 후보선택을 대상으로 한 기본 모형의 적중률(87.8%)도 종합모형(91.0%)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투표선택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정당태도의 요인들이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선호의 두 변수가 후보선택에 매우 유의미한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즉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와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가 이명박 후보선택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동영 후보에 대한 선택 모형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선호와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정당에 대한 거부의 태도는 선택 후보의 모형에 따라 그 영향의 유의수준이 달랐다. 이명박 후보선택의 경우는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대신,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는 예상된 부호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선호정당에 대한 태도 등을 통제할 때, 다른 정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는 반대 정당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제17대 대선에서의 한나라당 후보선택은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의 의미보다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점일 수 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는 별도의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명박 후보의 선택에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대한 거부보다 친 한나라당적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친 한나라당 성향을 강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선택 모형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뿐 아니라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의 태도도 모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투표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란 사실과 특히 선택후보의 소속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후보 선택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하면, 본 모형분석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 태도뿐 아니라 반대의 태도가 후보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이 규명된 것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이 정당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거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X_{11})와 거부(X_{21}) 태도가 이명박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률비(odds ratio)로 비교해 보면 전자는 1.2배 증가하고 후자는 1.3배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적어도 긍정적 태도에 상응할 만큼 이명박 후보선택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선호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독립적으로 거부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비록 정동영 후보선택 모형에서만 입증되었지만, 다차원적인 정당태도의 고려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이제까지 정당에 대한 선호로만 측정하는 일차원적인 모형에서는 밝힐 수 없었던 정당지지의 배타성이나 반(反) 정당투표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종합모형에 추가로 포함된 변수 가운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이명박 후보선택 모형의 경우, 영남지역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에 불과하였다. 정동영 후보선택의 모형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영남과 호남의 지역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선택에서도 지역주의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주목 받았던 이념이나 연령 등은 다른 제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요한다. 이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세대와 이념을 넘어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 해석된다.

V. 결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지지를 받아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주의 투표행태도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두 번째 정권교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또한 큰 득표율 차이로 정권이 교체된 데에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유권자의 정당 지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이명박 후보가 각종 비리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도 앞도적인 지지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당 지지의 이러한 변화를 비롯하여 정당태도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정당 성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한다. 본 연구는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의 다차원적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 선택에 미치는 정당태도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론적으로 정당성향에 대한 본래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경험적으로도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

장에 근거한 것이다. 즉,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투표선택에서의 정당 지지는 각 정당에 대한 분리된 반응이 종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먼저 정당 성향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통합민주신당에 대한 반대가 크게 증가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는 등 유권자의 당파성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선호 정당과 반대 정당을 지닌 유권자의 경우에도 선호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반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유권자의 정당 성향은 양극적인 태도의 일차원적 개념보다 다차원적인 개념화가 보다 적절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제17대 대선에 대한 주요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선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기본 모형으로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정당성향의 다차원적 개념화가 정당성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선택에 대한 모형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 아니라 부정적 태도 역시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은, 정당 지지가 단순히 정당 선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당 반대에 의한 결정일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후보선택 모형마다 달랐다는 점이다.

이명박 후보선택 모형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와 반대, 그리고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가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지만 다른 정당에 대한 반대의 부정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 선택 모형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선호와 반대의 태도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와 반대로 모두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이명박 후보의 선택은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에

기인한 친 정당투표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정동영 후보의 선택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선호와 별개로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반 정당투표의 성격도 지닌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정당성향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정당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반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정당지지의 변화와 선거결과와의 유동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당성향의 다차원적 접근은 정치행태의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투표율의 하락 현상을 비롯해 투표 참여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정당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의 영향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만흠. 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영호남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 김진국. 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김형준. 2007. “제17대 대선구도의 전망과 과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의 과제』. 아태정치학회 제16차 지역포럼.
- 노병만. 1997. “김영삼정권 권력엘리트의 특성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1:1.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5:2.
- 손호철. 1997. “지역주의, 진단과 처방.”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 신기현. 1999. “선거와 지역주의: 지역불균형발전과 인식을 중심으로.” 1999년도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신복룡. 1997. “한국의 지역감정의 역사적 배경.” 『한국정치사상사』. 나남.
- 이갑윤. 1997. “한국 정당제 변화의 특성과 요인: 1987-1997.” 『아세아연구』 제103호.
- 이상휘. 1993. “14대 대선에서 지역감정이 투표행위에 미친 영향: 전북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1.
- 전용주. 2007. “17대 대선과 한국 정당체제의 변화.”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국정치의 전망』. 21세기정치학회 2007년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 조기숙. 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1:2.
- 최영관. 1997. “지역갈등 해소방안을 위한 연구.” 1997년도 한국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발표논문.
- 황아란. 1998. “정당태도와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푸른길.
- _____. 2007. “영남의 지역주의: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와 지역주의 투표.”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지역정치』. 한국지방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 _____. 2008.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행태 분석: 지역, 이념,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 Brody, R. A. 1977. "Stability and Change in Party Identification: Presidential to off-yea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ashington, D. C.
- Campbell, A., P. Converse, W. Miller, and 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and sons.
- Cover, A. D. 1986. "One Good Term Deserves Another: The Advantage of Incumbency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786-801.
- Fiorina, M.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coby, W. G. 1981. "Party Identification and Cognitive Structure: Insights from Unfolding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1981 Annual Meetings of the South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emphis, Tennessee, Nov. 5-7, 1981.
- Kats, R. S. 1979. "The Dimensionality of Party Identification." *Comparative Politics*, 11:147-163.
- Kernell, S.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44-66.
- Lau, R. R. 1982. "Negativity in Political Perception." *Political Behavior*, 4:353-377.
- _____. 1985. "Two Explanations for Negativity Effects i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199-238.
- Maggiotto, M. A., and J. E. Pierson. 1977. "Partisan Identification and Electoral Choice: The Hostility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745-767.
- Petrocik, J. R. 1974. "An Analysis of Intransitivities in the Index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Methodology*, 1:31-47.
- Richardson, B. M. 1991. "European Party Loyalties Revisit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751-776.
- Shivley, P. 1980. "The Nature of Party Identification: A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John E. Pierce and John L. Sullivan, eds., *The Electorate Reconsidered*. Beverly Hills: Sage.
- Sigelman, L., and M. M. Gant. 1985. "Public Opinion in 1984." In Marlene M. Pomper, ed. *The Election of 1984: Reports and Interpretations*. Chatham, N. J.: Chatham

- House.
- _____. 1989. "Anticandidate Voting in the 1984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Behavior*, 11:81-92.
- Valentine, D. C., and J. R. Van Wingen. 1980. "Partisanship, Independence, and Partisan Identification." *American Politics Quarterly*, 8:165-186.
- Wattenberg, M. 1990. *The Decline of American Political Parties 1952-198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isberg, H. F. 198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2:33-60.
- _____. 1982. "Party Evaluations: A Theory of Separate Effects." Paper presented at the 1982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ilwaukee, Wisconsin.

[ABSTRACT]

A Multiple Indicators Approach of Partisan Attitudes: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Partisanship
on Voters' Choice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Hwang, Ah-Ran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carries historical import, the second-time power transfer since the democratization (1987). The election is also marked by a change in partisan support becoming more judgemental toward the current government's performance. This paper delves into the correlation of the voters' partisan attitude to the electoral outcome. In a holistic manner, both negative and positive implications are explicated. Voters' strong pro-party and anti-party sentiment toward a party was all time high during this election. The electoral analysis attests that a voter's party support is not simply a matter of loyalty but rather is a multi-faceted because a voter's positive attitude toward a party does not necessarily reflect his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other parties. What's interesting about the election is that almost all voters voted for Lee Myung-Bak not out of hostility towards other parties but out of loyalty towards the Grand National Party. On the other hand, Jeong Dong-Young of the United New Democratic Party received votes not only from loyal supporters but also those who are negative toward the other parties.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a multiple indicate model for voters' partisan attitude lies in that it provides crucial means for understanding the effect of partisanship on voters' choice.

Key Words | partisanship, vote choice, multi-dimensional concept